

광주 고교배정방식 변경안 논란 가열

희망네트워크 "손질 불가피" ... 교원단체 "선택권 제한"

시교육청 28일 확정, 올 중 3부터 적용

광주시교육청이 28일 확정할 2013학년도 고교 배정방식 변경안에 대해 학부모, 교원단체 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학교에 고루 배정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배정방식을 손질해 명실상부한 평준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6일 광

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지원 선발비율(40%)을 축소해 5%대로 유지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컴퓨터 추천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지원 40%가 유지된 탓에 특정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등 평준화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고교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선지원(2개교)한 해당 학교에서 추천으로 정원의 40%를 먼저 뽑고 나머지 60%는 지리적 정보시스템(GIS)을 적용해 학생이 선택한 5곳 가운데 한 곳을 추천배정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선지원)을 주는 방식이 우수학생들의 사립고 몰림 현상과 공·사립고 교간 학력차를 심화한다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별 정원에 비례하여 등급별 인원을 무작위 추출 배정함으로써 학교마다 학생들의 성적대가 고르게 분포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이 28일 고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이 방안을 확정하면 현재 중3의 고교 배정에 적용된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은 이같은 시교육청의 입장과 같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그러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교육력 제고 노

력 등은 도외시한 채 학교 선택권만 제한하려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구시대적 발상이다"며 반대하고 있다.

"광주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도 최근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없는 고교 배정방식 변경 추진 중단과 시외회의의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 김모(46)씨는 "학생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고교 배정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없이 교육청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주장과 입장이 첨예한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절차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시험 91% 합격

거점 국립대학 중 1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첫 변호사 시험에서 91%의 합격률을 기록, 정원 100명 이상의 전국 거점 국립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3일 법무부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응시자 96명 중 87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응시자 수 또한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와 함께 상위권에 포함돼 로스쿨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채희중기자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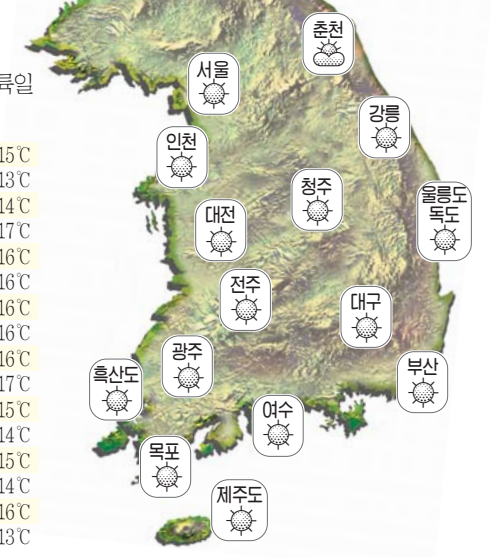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6분 해질 18시 50분 달돋이 08시 42분 달질 23시 11분

일교차 커요

구름이 많고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비가 올겠다.

광주	구름조금	2/15C
목포	구름조금	2/13C
여수	구름조금	5/14C
나주	구름조금	-2/17C
완도	구름조금	2/16C
구례	구름조금	-2/16C
강진	구름조금	0/16C
해남	구름조금	-1/16C
장흥	구름조금	-1/16C
순천	구름조금	3/17C
영광	구름많고안개	-1/15C
진도	구름조금	1/14C
전주	구름조금	0/15C
군산	구름조금	0/14C
남원	구름조금	-3/16C
홍산도	구름조금	5/13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1.0	3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1.0	3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1.0	3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목포 04:45	09:57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16:37	21:53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여수 11:15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23:52	17:2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수)	29(목)	30(금)	31(토)	4/1(일)	2(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6/17	5/17	9/12	5/10	2/13	5/16

광주지법 그림자배심원 참여 7인

"법원 문턱 낮아졌나 보러왔다"

"법원 문턱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알고 싶어서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처를 입은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이나 그림자배심원제도 등 법원의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들 시민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유무죄 여부 및 양형과 관련 모의평결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26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존속살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물론 그림자배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씨는 지

난해 말 가늠하러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첫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에는 자발적으로 그림자배심원을 신청한 취업준비생, 주부, 회사원, 기업을 등 다양한 연령·계층의 7명이 참여했다.

그림자배심원 양재근(67·사업)씨는 "재판을 위해 평소 일정을 모두 미뤘다"며 "법원 문턱이 너무 높아 불만이 있었는데 진정으로 법원이 소통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오카리나에 빠진 이주여성들

26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이 오카리나를 배우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트라우마센터, 치료·재활·복지 아올려야"

용역보고 3개 방안 제시

5·18 광주민중항쟁 피해자를 위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는 치료와 재활,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5·18기념재단과 평화박물관측은 27일 오후 7시 5·18교육관(상무지구 감대중건벤치센터 인근)에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결과'보고회를 갖고 그동안 추진 사항과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회를 앞두고 26일 공개한 보고서는 "새로 만들 트라우마 센터는 치료와 재활, 복지 등을 안정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용역팀은 국의 트라우마센터 사례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센터의 규모와 관련 상근인력 25명에 연간 예산 15억이 투입되는 기본형, 상근인력 40명에 연간 예산 21억 규모인 확대형, 상근인력 12명에 연간 예산 8억 규모의 축소형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www.kjhr.com

국제보청기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서울점 02-765-9940

목포점 061-262-9200

순천점 061-752-9940

장흥점 080-222-9975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호남총판 광주 1호점

안동 간고등어

오른기념 드

고등어먹고 제주도로!

10박스 이상 구매시

제주도 왕복 항공

여행상품권 증정 2인(2박3일)

호도선물로 증정합니다!

안동간고등어 선/물/박스 ₩12,000~

제주도 2인 왕복항공여행권을 소지하고객만의 혜택

제주왕복항공요트무료여행권

문의전화 1577-4929

H.P 010-5760-9179

www.honamgodunga.com

영업사원 및 딜러 대모집

· 여행 및 레저 사업부 0명 · 기업 특관 유통사업부 0명

(주)에프한국제무역 / 히든여행사 광주점